

윤리적 고찰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의문들

질병 또는 난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

20 04년 2월 12일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 판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황우석 교수가 이끄는 국내 연구진에 이루어진 이 연구는 이른바 '치료용 복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였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월 19일 세계가톨릭의사협회(World Federation of Catholic Medical Association, FIAMC)는 성명을 발표했다. FIAMC는 성명을 통해 한국 과학자들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일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줄기세포를 뽑아내기 위해 복제된 인간 배아를 죽여야만 하므로 이 연구가 비도덕적이라는 점입니다. 인간 생명을 고



구영모 교수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생명의료윤리

의적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타인들의 질병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배아처럼 작고 힘없는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자선행위는 인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배아복제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바로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배아의 생산을 일단 허용하고 나면, 인간 배아의 사용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바티칸은 1997년 복제양 돌리 탄생 이래 인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교회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장려해 왔다. 이번 성명서의 내용도 가톨릭교회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톨릭의사회가 이토록 신속하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004년 5월 6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 온라인 판은 한국 과학자들의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윤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네이처>는 사실과 특집 기사를 포함하여 무려 다섯 페이지에 걸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몰라도 <네이처>가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이만큼 자세하고 길게 다루었던 적은 아마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다. <네이처>의 논조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기사 중 일부를 번역하여 아래에 옮겨본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생명윤리학자들은 난자 공여자 모집을 둘러싸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황우석 교수와 그 동료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윤리지침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우려는 황우석 교수 밑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 한 명과 <네이처>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더욱 커질 것이다. 논문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 그 학생은 자신과 실험실의 다른 연구원 한 명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이 학생은 난자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서툰 영어실력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말을 바꿨다.

윤리학자들은 그런 식의 난자 기증이 올바른 연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증자와 연구자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어 연구책임자가 기증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연구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실험 지침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의 조사 이전에도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의 연구에서 난자 공여자들의 모집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연구

팀이 무상으로 난자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모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3월 말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했다.

2004년 3월 한국생명윤리학회는 7인으로 구성된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를 만들어 이 문제를 조사해 왔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5월 22일 총회를 열어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연구는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3쪽짜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학회는 황우석 교수 등에 대해 12개 문항의 질문을 제기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12개의 질문들은 <표>와 같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온 황우석 교수였건만 정작 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한편,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한층 더 단호하다. 5월 29일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명의 날 기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손성호 신부님(주교회의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의 발표 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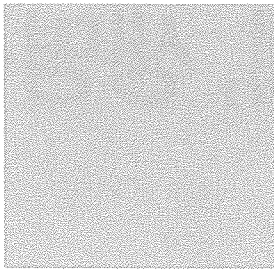
체세포 핵이식이나 배아분할 등 복제를 통해 새로운 개별 인간 배아를 만드는 모든 기술은 확실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복제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참으로


하나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한갓 수단으로 다루고 파괴하는 행위로서 매우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자궁에 이식하지 않은 초기 인간 배아도 생명을 지닌 한 인간 개체이며, 자율적인 유기체로 발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태아가 될 온전한 인간생명이다.

우리는 결코 질병이나 난치병의 치료를 거부하



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 또는 난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 

〈표〉 ‘한국생명윤리학회’ 의 질문

A.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1. Nature(2004. 5. 6.)의 보도대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채취한 것이 사실입니까?
2. 난치병 환자의 가족 또는 친척 등 이해 갈등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난자 기증을 받았습니까?
3.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증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얻었습니까? 만약 얻었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Nature 기자에게 동의서 양식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4. 한양대병원 IRB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난자 채취 연구 계획(연구책임자 황윤영 한양대 산부인과 교수,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이사장)을 심사한 후 승인하였습니까?
5. 한양대병원 IRB는 이 연구를 심사, 승인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6. 왜 한양대병원 IRB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7. 한양대병원 IRB는 지속심사(continuing review)를 통해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습니까?
8. 난자 채취와는 별도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IRB에서는 이 연구계획을 심사하였습니까?

C. 연구비의 출처

9.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 연구에 사용된 재원이 익명의 독자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cience에 게재된 논문 말미의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Advanced Backbone IT Technology Development (grant IMT2000-C1-1) to W.S.H. and the Stem Cell Research Center (grant M102KL0100-02K1201-00223) to S.Y.M."은 무엇입니까? 황우석 교수는 후자의 연구비에 대하여 'technical grant'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10.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위 9번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까?

D. 연구자의 충전성(充全性, integrity) 및 논문 저자 기재(authorship)

11.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2003. 5.)〉은 (일반원칙 제2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윤리위원인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시행한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2. Science에 게재된 논문의 15인 공저자 중 제13 저자인 박기영(Ky Young Park)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생명과학전공 교수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2004. 5. 8.)에서 밝힌 대로 생명윤리 차원에서 이 논문에 기여한 공로로 공저자가 되었다면, 이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